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 2026년 명예지사장 위촉

지역 농업인단체장 5인 위촉, 현장 중심 소통·협력체계 강화

뉴스일자 : 2026년04월07일 20시18분



[GBS방송 이명수 본부장]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지사장 정찬조)는 2026년 제4기 명예지사장 5인을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명예지사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역 내 영향력 있는 인물을 위촉하여 공사와 농업인 간 소통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위촉된 명예지사장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고흥군연합회 이재철 회장, 한국농촌지도자 고흥군연합회 송효수 회장, 쌀전업농 고흥군연합회 정세균 회장, 한국생활개선 고흥군연합회 박경숙 회장, 한국여성농업인 고흥군연합회 신라경 회장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농업인단체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위촉식에서는 2026년 고흥지사 추진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유지관리 자원 확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어 고흥지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농촌용수 공급과 재해·재난대비 현황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으며, 명예지사장은 원격제어시스템에 대한 시연을 보며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공사 물관리 시스템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정찬조 고흥지사장은 “급변하는 농정환경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명예지사장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지역 농업인의 의견을 세심하게 듣고, 지역농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지사는 이번 위촉식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역 농업인 단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상생적 관계를 꾸준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gbsnews.co.kr> 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